

새싹 불자를 기읍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세상에 충실하려 했으나 세상은 '나' 를...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예전에는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온가족이 밥을 먹었... 어른의 지리가 아랫목에 마련되고 간지를 나란히 놓았지요...

간자: '어른의 손가락'을 높여 이르는 말.

개비: 1.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날개. 마치 참새 새끼라든가 잡은 듯 한 손으로 성냥갑을 잔뜩 움켜잡고 개비를 뽑아 두 그어 됐다...

갖은소리: 1.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말. 갖은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얘기해라. 2.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체하는 말.

개개뿔어지다: 쫄리거나 술에 취해서 눈에 정기가 흐려지다. '개개뿔리다'와 같은 말이다. (선여는 눈금이 끼고 개개뿔어진 눈으로 강 침자를 흘려보며 불벽은 소리를 지른다.)

안명옥(시인 · 고령고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최서애 작 '탈출기'

'탈출기'는 1925년 <조선 문단> 3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주인공 '나(박 군)'가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로 하고 사회 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친구인 김 근에게 고백하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본래 1924년 <조선 문단> 10월호에 '종년년'이란 필명으로 투고된 체험기로서, 이광수의 권유에 따라 소설로 고쳐 쓰게 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곧 작품화된 것으로 가난한 삶의 고발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일제 강점기 만주 간도지방을 배경으로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단편소설이네요.

'나'는 5년 전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새 삶의 터전으로, 기름진 땅이라는 간도를 찾아갔다. 그곳에만 가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고 무지한 농민을 가르쳐 이상촌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에는 빈 땅이 거의 없었고, 소작인을 하려고 해도 밭을 주지 않았다.

을 보고 '나'는 심한 갈등과 자책감에 빠졌다. 생선장수, 두부장수를 하면서 연명했지만, 갖난아이는 젓 달라고 보채고, 겨울이 닥쳐와 땀나무가 있어야 두부장수도 할 수 있어 산에 가서 나무를 도적질 하다가 순사에게 잡혀 수감될 땐 매를 맞았다. '나'는 세상에 충실하려고 했으나, 세상은 '나'와 어머니와 아내까지도 밀시하고 학대했다.

궁핍 · 부조리한 현실 고발 작가의 실제 체험 소설화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아 왔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 왔다'는 분노가 머릿속에서 꿈틀대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민중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내, 자식까지 버리고 00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을 우선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나(박 군)는 고향을 떠나 간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을 떠난 지식인. 현실의 모순과 궁핍에 순응하는 인물에서 사회적 모순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00단에 가입하

고, 아내를 순박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여인이죠. 어머니는 궁핍 속에서도 아들의 고통을 대신하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모성의 여인으로 읽혀요.

하지만 소설을 읽다보면 '나'가 사상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버려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미흡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에 대한 인식 이전에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그 나름대로 현실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전형적인 신경향파 소설의 결말이 살인이나 방화 등에 의해서 처리되는 데에 견주어 본다면 이 탈출기 소설에서는 '00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경향파 소설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작가 의식을 느낄 수 있겠지요.

학생여러분들은 이 '탈출기'를 읽다보면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간문, 즉 편지글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의 실제 체험이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지요.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화날 때 어떻게 해야하죠?

화가 많이 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면 저 자신이 괴롭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화 안 내는 방법 없을까요? (D: 화내기 싫어)

마음속터오르는 불 먼저 끄세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은 흔히 짜증이나 화를 내곤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돌려줄까?'라는 생각이 외에는 아무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노여워하는 불길이 크게 일어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큰입을 지르르게 됩니다. 이 불길이 극단적으로 외부로 향하면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르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은 쉬어야 합니다. 산길을 걸다가 자칫 길을 잘못 잃은 사람처럼,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아야지요.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함사다. 불이 타고 있는데 방화범 잡겠다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 안 되지요. 일단은 불부터 끄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있다면, 침을 수 없이 화가 솟는다면, 그럴수록 불 낸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을 꺼야 해요. 부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경전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탁발한 스님은 <화>라는 책에서 화난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솟아오르거나, 견디기 힘든 상처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파올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아니면 마음을 모아 한 걸음 두 걸음 조용히 걸거나, 거울을 보며 굳어버린 내 얼굴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또는 산길에서 느긋하게 쉬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모두가 행복해질지 길이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지도부사 운산 스님)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 by. 정운지. 그의 스승 플라톤이 세상의 본질을 탐구했다면, 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살펴보면 영영불변한 것들, 질리에 대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현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행복이란 스승에게 달려있다.' '행복이란 스승에게 달려있다.' '행복이란 스승에게 달려있다.'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관, 스테형강관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